



광주 북부경찰,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4일 오후 8시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일대에서 광주청 기동순찰대, 북부 자율방범연합대, 북구,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

이날 야간 합동 순찰은 봄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엔 4번히 4개 기관 합동 순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관·경 안전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일대 범죄취약지 장소와 다중밀집장소 등에서 110명이 참석해 도보 순찰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관·경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안전한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광주교통공사, 지역 청소년 진로 체험 행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경신중학교 학생 200명을 초청,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현장 진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기지 내 정비고 견학, 종합관리동 방문, 안전 시설물 체험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전동차 정비에 활용되는 각종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며 생생한 직무 정보를 습득하고, 공사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철도 분야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경신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철도 분야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유익한 체험 활동이 다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사)기부천사, 전남대병원에 후원금 기탁

광주·전남지역 대표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기부천사가 전남대학교병원에 새병원 건립을 위한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기부천사의 전남대병원 누적후원금은 4000만원에 달하며 이외에도 저소득층 환자 직접기부, 장학금 전달, 휠체어 기부 등의료물품 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대병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병원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윤현주 공공보건 의료사업실장, 최병이 간호부장 등 보직자와 기부천사 김정주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김정주 기부천사 대표는 “경제 불황으로 개인사업은 매우 힘들지만 사회가 어려울수록 기부는 꼭 필요한 만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다쏘시스템코리아, 인재 양성MOU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최근 다쏘시스템코리아와 미래차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

전남대와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 주관 ‘미래차 인력양성 부트캠프’ 등 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가 설계한 교육 콘텐츠와 실습 프로그램에 다쏘시스템이 자사의 플랫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문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다쏘시스템은 현대자동차 등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실무 역량을 반영한 현장 중심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설계-제조 연계형 실습 환경 구축 △산업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디지털 기반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산학협력 중심의 미래차 교육 혁신 모델을 공동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철도교통안전의 달 캠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가 광주역 광장 및 철도건널목에서 철도교통안전의 달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 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합동으로 시행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 철도 건널목 통행 요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열차 내 화재 대응 요령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와 현장 안내를 진행했다.

김영진 광주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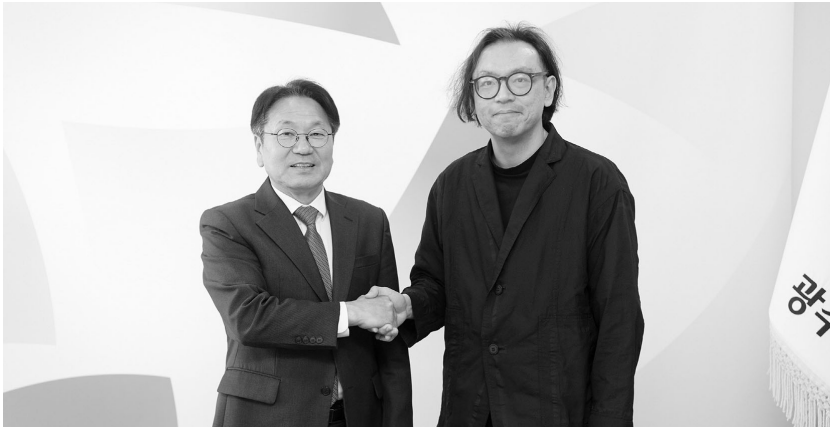


광주도시공사, 원스톱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인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이동복지상담소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법률·취업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겪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소에서는 취업 지원, 금융 서비스, 생활 법률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왔다. 상담은 공공임대주택 2개소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약 100여 명의 입주민이 참여했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이 함께 참여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권범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비엔날레 본격 준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인 호 추 니엔(Ho Tzu Nyen) 감독을 만나 내년 9월 열리는 비엔날레 기획 방향과 성공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번 만남은 오는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본격적인 준비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예술감독이 처음으로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 시장과 호 추 니엔 감독은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역사성과 광주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이번 16회 광주비엔날레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녹여내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화의 여지가 개인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AI 산업의 두각, 계엄·탄핵 등 16회 비엔날레는 15회 때와 다른 변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변화의 여감은 개인 모두에게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하며 제16회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사람들이 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6월 큐레이터팀 구성을 시작으로, 행사 기획 개요, 참여작가 확정, 전시공간 구성 등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블리온 전시도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시각미술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이 기자



광주소방 ‘4월의 우수 광주 소방인’ 5인 선정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송한규·박선홍·한영길 소방위와 오정균·임효정 소방장이 ‘4월의 우수 광주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사진)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소방을 빛낸 4월의 우수 소방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월 우수 소방인’에는 119특수대응단 송한규 소방위, 북부소방 박선홍·한영길 소방위, 남부소방 오정균 소방장,

광산소방 임효정 소방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된 소방인들이다.

송한규 소방위는 지난달 비번일에 식사 도중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기도 폐쇄를 의심, 곧바로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실시해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했다.

정상이 기자



5·18자유공원 정기 문화행사 메이데이

(May:Day)가 지난 26일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가족단위 참석자들이 마술과 버블(비눗방울)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예술을 결합하여, 가족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날 오월의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사적지와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까지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9시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